

이환욱 미디어/엔터/디지털자산
02 3770 5590
hwanwook.lee@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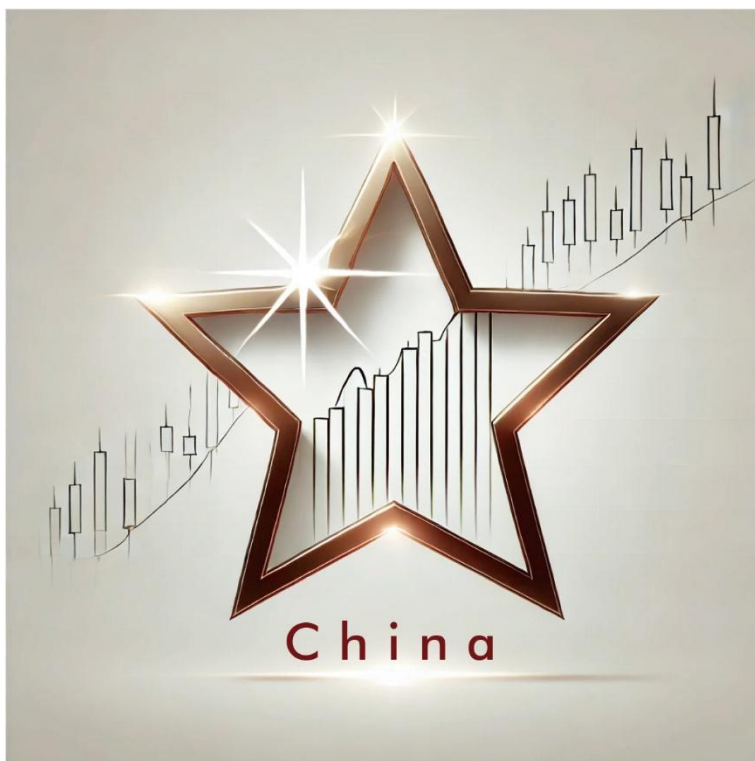
한동우 Research Assistant
02 3770 3647
dongwoo.han@yuantakorea.com

No. 6



26 February, 2026 Yuanta Research

시 장 의 별 을 찾 아 서





Y U A N T A



시 장 의 별 을 찾 아 서

SUMMARY



[중국 콘서트 산업]

중국 공연 소비는 콘서트 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9년~2025년 중국 전체 상업공연 박스오피스는 연평균 20.6%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동기간 콘서트를 비롯한 대형 상업공연 박스오피스는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콘서트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 근거는 1) 중국 정부가 최근 서비스 소비 관련 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 2) 공연관광 문화의 부상에 맞춰 지방정부가 ‘티켓 경제’ 모델을 정교화하며 해당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콘서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영향으로, 최근 콘서트 시장의 성장을 자체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중국 정부의 해외 아티스트 유치 정책 확대를 감안하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며, 한한령 해제시 중국 콘서트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한한령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한국 IP의 최근 월드투어 회당 모객 수와 QQ뮤직 팔로워 수를 기준으로 중국 내 한국 IP의 ‘콘서트 체급’을 추정해 보면, 2016년 대비 6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박스오피스로 환산하면, 한한령 해제 시 한국 아티스트의 중국 진출만으로도 중국 전체 대형공연 시장 기준 11% 이상의 추가 업사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기업으로는 중국 최대 공연 티켓팅 플랫폼을 보유한 Damai Entertainment (1060.HK) 를 제시한다. 동사는 중국 내 대형 콘서트 티켓팅 커버리지가 100%에 달해 향후 중국 콘서트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CONTENTS



미디어/엔터/디지털자산	06
“차이”나는 中 콘서트 산업	07
(1) 공연시장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콘서트 산업	09
(2) 1선 도시만으로는 감당 못하는 수요	10
콘서트 소비는 단기 유행이 아닌 구조적 트렌드	11
(1)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지속 확대	11
(2) ‘공연 관광’ 문화의 부상	13
한한령 해제 시나리오와 中 콘서트 산업	14
(1) 한중관계 개선 흐름은 현재진행형	14
(2) 중국 콘서트 산업은 해외 아티스트 공급이 필요하다	16
(3) 중국 지방 정부의 해외 아티스트 유치 정책	18
(4) 6배 이상 확대된 한국 IP의 체급	19
(5) 한국 IP의 티켓 파워는 얼마나 될까?	21
기업	24
Damai Entertainment (1060.HK)	25

TOP FOCUS



미디어/엔터/디지털자산



이환욱

미디어/엔터/디지털자산

02 3770 5590

hwanwook.lee@yuantakorea.com



한동우

Research Assistant

02 3770 3647

dongwoo.han@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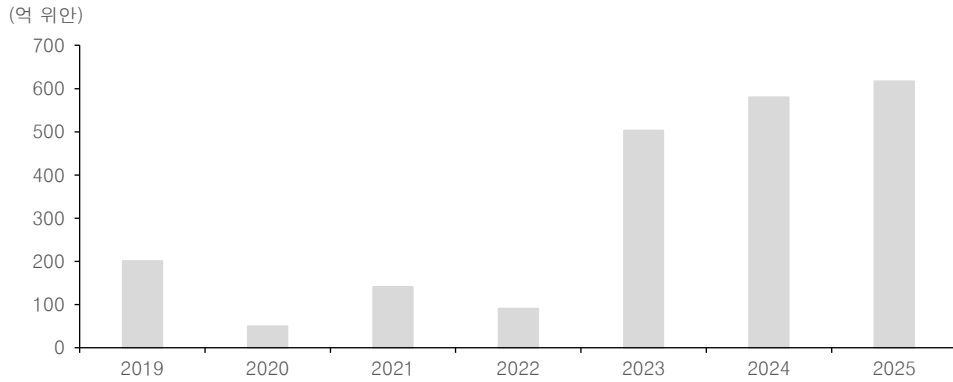
“차이”나는 中 콘서트 산업

중국 공연 소비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0~2022년 사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내 공연이 대거 연기·취소되면서 중국의 상업공연 회차와 티켓 판매액 모두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며 공연 기획이 재개되고 신규 투어가 늘어나자 3년간 억눌렸던 관람 수요가 보복소비의 형태로 분출됐다. 그 결과 2023년에는 박스오피스와 공연회차 모두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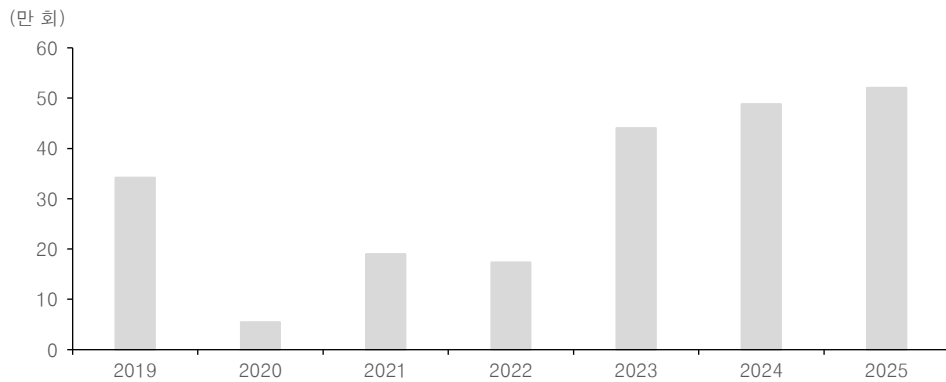
중국공연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2025년 중국의 상업공연 박스오피스는 약 200억 위안에서 617억 위안으로 증가해 연평균 20.6% 성장했으며, 공연회차는 2019년 34.2만회에서 2025년 52만회로 연평균 7.2% 성장했다.

중국 공연 규제·완화 타임라인		
일시	발표기관	주요내용
20.01.23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 분야 행사/장소 운영에 대한 방역·통제 요구
20.01.23~26	지방 문화여유국 및 문화여유청	- 하이난, 푸젠, 산시, 상하이, 베이징, 충칭 등 중국 주요 성·시에서 공연 및 문화 행사 즉시 중단 발표
20.05.12	문화관광부	- 저위험 지역 중심으로 단계적 재개 - 총 좌석의 30% 이내로 관객 수 제한
20.08.10	문화관광부	- 저위험 지역에서 중형 이하 공연 허용 - 총 좌석의 50% 이내로 관객 수 제한
20.09.18	문화관광부	- 저위험 지역에서 영업성 공연 전반 허용 - 총 좌석의 75% 이내로 관객 수 제한
21.03.12	문화관광부	- 저위험 지역에서 관객 수용률 상한 폐지
22.12.09	문화관광부	- 저위험 지역에서 대형 공연 개최시 관객 수 제한 폐지
23.01.11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소관 '8개 방역 가이드' 폐지

자료: 중국 문화관광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상업공연 박스오피스 추이

자료: 중국공연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상업공연 공연 회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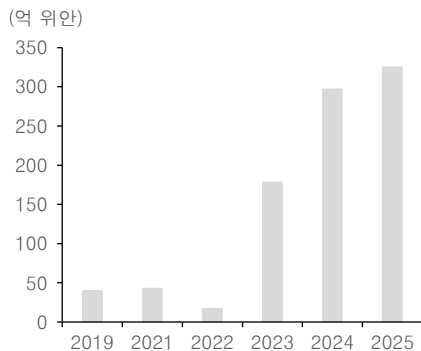
자료: 중국공연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공연시장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콘서트 산업

특히 같은 기간동안 대형 상업공연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대형 상업공연은 상업공연 중 관객 규모가 5,000명 이상인 공연을 뜻하며 이 가운데 80% 이상의 비중을 콘서트가 차지한다(기타 음악축제, 연극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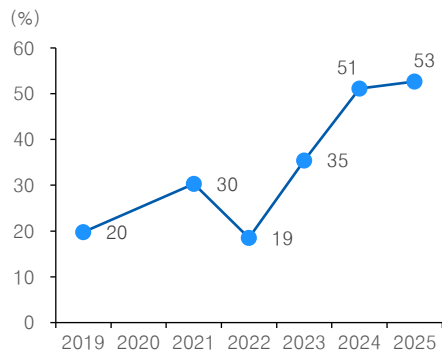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2025년 중국 전체 상업공연 박스오피스는 연평균 20.6%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대형 상업공연 박스오피스는 2019년 약 40억 위안에서 2025년 324억 위안으로 확대되며 연평균 4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동기간 동안 대형 상업공연 박스오피스가 전체 상업공연 박스오피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9.8%에서 2025년 52.6%까지 상승해 전체 상업공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 대형 상업공연 박스오피스 추이(2019-2025)



자료: 중국공연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0년 데이터 부재

대형 상업공연이 전체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2019-2025)



자료: 중국공연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0년 데이터 부재

즉, 코로나19 이후 중국 공연시장의 성장은 대형 상업공연이 견인했으며, 대형 상업공연의 대부분이 콘서트 장르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후 중국 공연소비의 급성장은 콘서트 시장의 확대가 주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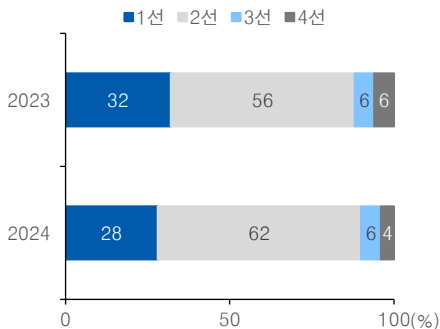
(2) 1선 도시만으로는 감당 못하는 수요

이러한 콘서트 수요의 급증은 1선 도시 공연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1선 도시 콘서트장 공급이 포화되는 양상을 만들었고, 그 결과 콘서트 개최가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확산되는 흐름을 촉발했다. 중국공연산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상업공연의 관객 수는 2023년 2,790만 명에서 2024년 3,650만 명으로 약 31%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56% 수준이었던 2선 도시의 대형 콘서트 공연회차 비중은 2024년 62%로 확대되었다.

2025년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도시별 비중을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도략(道略, Daolue) 음악산업연구원의 도시별 콘서트 모객 수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해보면, 2025년 1분기 65% 수준이었던 중국 2선 이하 도시의 전체 콘서트 모객 비중은 2025년 11월 73% 수준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5년에도 콘서트의 저선(2·3선 이하)도시로의 하방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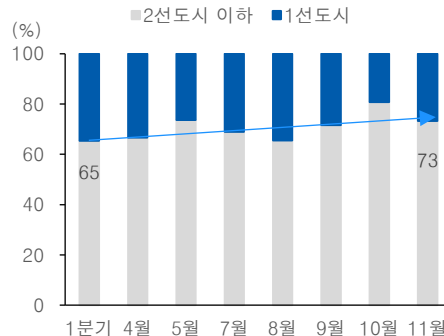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중국의 저선(2·3선 이하)도시에서는 공연장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장쑤성 우시(无锡)에서는 2024년 1월 관객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2026년 중 개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저장성 타이저우(台州)에서는 2025년 12월, 관객 약 12,500명을 수용 가능한 대형 스포츠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광둥성 포산(佛山)은 2025년 6월, 20,000석 규모의 종합경기장과 12,000석 규모의 종합체육관을 완공했다.

도시별 대형 콘서트 회수 비중(2023~2024)



자료: 중국공연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도시별 콘서트 모객 수 비중 (2025.01~2025.11)



자료: Daolue(道略音乐产业研究院),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6월 데이터 부재

콘서트 소비는 단기 유행이 아닌 구조적 트렌드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모두 해제된 2023년 이후, 중국 공연시장은 콘서트 산업 성장세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다만 2023년의 높은 성장률과 이후 공연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2025년까지 이어진 성장 흐름을 감안하면 최근 콘서트 산업의 호황은 3년간 억눌렸던 수요가 일시에 분출된 ‘보복소비’ 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2023년 이후 중국 콘서트 산업의 초과회복 및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소비 진작 기조 속에서 공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된 점과, 민간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연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된 점이 맞물려 있다. 2026년에도 정부 지원정책 확대와 공연관광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콘서트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지속 확대

2023년 1월 문화관광부는 ‘코로나 방역 가이드’를 폐지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2023 문화·관광 소비 촉진 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공연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23년 7월 국무원은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위한 통지’를 통해 서비스 소비 확대의 일환으로 공연 승인 절차 간소화와 콘서트·음악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각 지방정부도 공연 개최 지원금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그 결과 2023년 중국 상업공연 개최 횟수는 2022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서비스 소비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26년에도 공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9월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 SCIO)은 상무부·발개위·문화관광부·인민은행 등과 함께 ‘서비스 소비 확대 정책 패키지’를 공표하며 문화·관광 분야 서비스 공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를 명시했다. 또한 202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내수 중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 소비 공급 확대와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정부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콘서트 개최 및 해외 아티스트 유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공연산업협회에 따르면 대규모 공연의 지역 소비 승수 효과는 6.85배로, 공연 관람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평균적으로 티켓 가격의 6.85배에 달하는 금액을 숙박·교통·식음료 등 지역 내에서 추가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서비스 소비 관련 부양 정책

정책 발표일	발표 기관	주요 내용
2025.09	국무원 신문판	- 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 발표 -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 목록'에 더 많은 서비스 소비 부문 포함 - 공연·애니메이션·게임·영상의 IP를 활용해 오프라인 체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 - 국제·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를 지원하고 '스포츠 행사 + 관광' 소비 모델 확산 - 외국인 소비 유치를 위해 무비자입국 대상 국가 범위 확대 - 중·고급 의료 및 레저관광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자본·민간투자 유치 - 초·중등학교에 봄·가을 방학을 도입하여 관광 및 기타 서비스 소비 시간 확보 - 다양한 자금 조달 채널을 활용해 문화, 관광, 복지, 스포츠 분야의 인프라 시설 건설 지원 - 금융기관의 서비스 소비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 유도 - 지역별 서비스 소비 판매액 산출 속도를 높여 통계적 모니터링 강화
2025.12	중앙경제공작회의	- 양신정책(대규모 설비와 소비재에 관한 보조금 정책)의 시행 최적화 - 양질의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서비스 소비의 잠재력 극대화

자료: 언론종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공연관광’ 문화의 부상

민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공연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확대가 맞물리며 공연을 보기 위해 타도시로 여행하는 ‘공연관광’ 문화가 빠르게 부상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2025년 9월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간 ‘공연과 함께하는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콘서트·음악축제 등 대규모 공연의 경우 도시 간 이동 관람률이 6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9월 개최한 주궈롄의 중국 지난(济南)시 콘서트의 경우 관객의 90%가 타 도시 방문객이었고, 60% 이상이 타성(跨省) 이동 관객이었다. 해당 기간동안 지난시의 관광 예약은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했으며, 호텔 매출은 3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지방 정부에서는 공연 관람 수요를 관광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티켓 경제(票根经济)’ 모델을 정교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지원정책이 대형 콘서트 및 유명 IP 유치에 대한 보조금·인센티브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 간 관객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지방 문화관광 부서를 중심으로 공연 티켓을 활용해 현지 소비에서 실질적인 할인과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장시성 난창은 콘서트 티켓 소지자에게 등왕각(滕王阁) 등 9개 국영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장쑤성 창저우는 ‘원 티켓·도시 탐험’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축제·마라톤 참여와 연계해 숙박·외식·문화관광·의류 등 100여 개 제휴처에서 할인과 부가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광시성 난닝 역시 관광지·레스토랑·쇼핑몰·지하철·버스 등 최대 45개 문화·관광·스포츠·상업 채널에서 팬덤 친화형 할인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공연 경제가 ‘티켓 경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2026년에도 공연관광 트렌드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한령 해제 시나리오와 中 콘서트 산업

(1) 한중관계 개선 흐름은 현재진행형

중국 콘서트 시장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공연 관광 트렌드에 힘입어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영향으로 최근 성장을 자체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한령이 해제될 경우, 중국 콘서트 산업은 현재의 완만한 성장 국면을 넘어 재차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중국 정부에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2024년부터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져 왔고, 2025년 들어서 그 흐름이 가속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2025년 11월 경주 APEC을 계기로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과 韓-中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이어, 2026년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양국 고위급 인사 간 교류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6년 1분기 중으로 韓-中 장관급 회담을 추진 중이며, 해당 회담에서 양국관계 전반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6년 1월 27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 일부를 철수 조치하면서,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현안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중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한한령이 해제될 경우,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중국에서 대규모 K-pop 콘서트가 재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공연관광 트렌드와 그동안 누적된 한국 메가 IP에 대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중국 공연시장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24.05~현재)

날짜	내용
24.05.03	소프라노 ‘조수미’ 中 베이징 공연 개최
24.10.18	韓 인디밴드 ‘검정치마’ 中 산시성 시안 공연 개최
24.10.28	디어유 & 텐센트 뮤직 계약 체결
24.11.01	중국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25년 말까지)
24.11.23	한-중 문화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쑤예리 중국 문화여유부장) 회담
24.12.12	한중 ‘제28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5.02.07	우원식 국회의장 - 中 시진핑 주석 회담
25.02.19	中 국무원 판공청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계획’ 발표
25.03.07	韓 영화 중국 본토 개봉 (봉준호 감독 ‘미키17’ 개봉)
25.03.20	韓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도입 허용 (3Q25 시행)
25.04.12	韓 3인조 래퍼 ‘호미들’ 中 후베이성 우한시 공연 개최
25.04.12~13	‘워터밤 하이난 2025’ 개최
25.04.25	K-POP 한중평화협회 출범
25.09.29	한국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시작(~26.06.30까지)
25.10.31~11.0	경주 APEC - 이재명 대통령 & 시진핑 주석 정상회의
26.01.04~01.0	韓-中 정상회담 개최
2026.01.27	中정부 서해 무단설치구조물 일부 철수 조치
2026년 1분기	韓-中 외교장관 회담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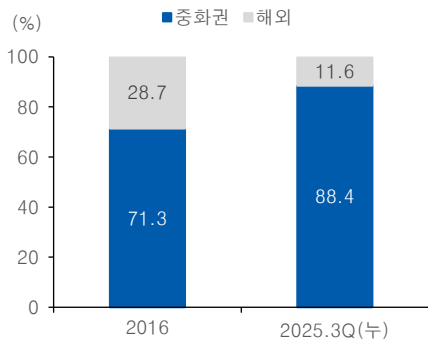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중국 콘서트 산업은 해외 아티스트 공급이 필요하다

중국 콘서트 산업은 양질의 아티스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2016년 말 한한령과 2020~2022년 코로나19를 거치며 중국 콘서트 시장의 아티스트 다양성은 축소됐다. 한한령이 2016년 8월부터 본격화되면서 한국 아티스트의 공연 횟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연간 기준 중국 전체에서 외국인 아티스트(중국 및 중화권 국가 제외) 콘서트 비중은 29%에 달했다. 당시 한국 아티스트는 중국 전체 콘서트의 7%, 외국 아티스트 콘서트의 24%를 차지해 단일 외국 국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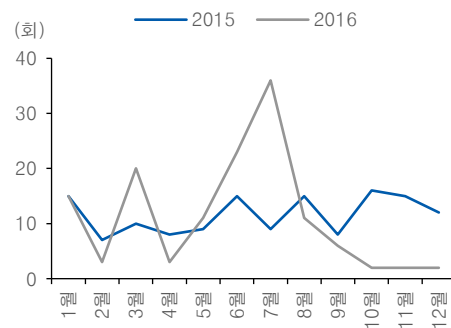
하지만 한한령 시행 이후인 2017년부터 한국 아티스트가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이후 2020~2022년 코로나19 봉쇄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 외국인 아티스트(중국 및 중화권 제외)콘서트 비중은 2022년까지 사실상 0%에 수렴했다. 이후 2023년 3월부터 중국 정부가 해외 아티스트 콘서트 승인 절차를 재개하면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외국인 아티스트 개최 콘서트 비중은 전체의 약 11% 수준까지 회복됐다. 다만 이는 2016년 당시 29%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아, 회복 률은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및 2025년 3Q 누적 해외 아티스트 비중



자료: Daolue(道略音乐产业研究院),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15년 및 2016년 한국 가수의 월별 중국 콘서트 횟수



자료: Daolue(道略音乐产业研究院),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공연장 수용 규모 측면에서 한국은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급 공연장이 3곳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35 곳 이상의 스타디움급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연장을 안정적으로 채워줄 메가급 아티스트(IP)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2025년 콘서트 티켓 매출 상위 1~15위 아티스트의 콘서트 모객 현황을 보면, 공연 1회당 모객 수가 5만 명을 초과하는 IP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아레나·중소형 공연장과 스타디움을 혼합해 투어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또한 콘서트 개최 수요가 1선 도시의 스타디움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지방(2선 이하)지역 스타디움급 공연장을 회당 5만 명 이상 모객이 가능한 해외 아티스트나 한국의 아티스트가 채워 준다면 박스오피스 매출 성장뿐 아니라, 콘서트 체류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5 년 중국 콘서트 박스오피스 TOP15 아티스트 모객 현황

가수	관객 수(만 명)	소형(<3만석) 회차	중형(3~5.5만석)	대형(>5.5만석) 회차	회당모객수
五月天 (Mayday)	326.7	6	17	51	44,149
邓紫棋 (G.E.M.)	210.3	8	36	19	33,381
张学友 (장학우)	108.5	104	0	0	10,433
张杰 (장제)	225.9	13	14	35	36,435
周杰伦 (주걸륜)	93.9	2	6	15	40,826
汪苏泷 (왕쑤룽)	198.9	0	4	42	43,239
周深 (저우선)	114.4	5	22	27	21,185
陶喆 (도철)	117	17	8	16	28,537
林俊杰 (JJ Lin)	80	11	4	10	32,000
张韶涵 (장소함)	107.2	3	16	12	34,581
陈奕迅 (천이쑤)	44.5	43	0	0	10,349
林忆莲 (린이렌)	105.3	7	12	14	31,909
王力宏 (왕리훙)	55.3	49	0	0	11,286
十个勤天 (스거친텐)	83.6	2	19	0	39,810
刘若英 (류릭잉)	59.2	53	0	0	11,170

자료: 언론종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중국 지방 정부의 해외 아티스트 유치 정책

이에 따라 중국의 각 지방정부도 해외 아티스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3월 20일 중국 문화관광부는 해외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상업 공연에 대한 신청 접수 및 승인 절차를 재개했다. 이후 상하이·항저우·푸젠 등 중국의 주요 성·시에서는 해외 주요 아티스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콘서트 승인 프로세스 단축 등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해외 아티스트 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시는 24년 4월 대형 콘서트 및 음악축제 유치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콘서트 개최 시 누적 관객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푸젠성에서는 2024년 10월, 최근 3년 내 처음으로 푸젠성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티스트 콘서트에 대해 지원금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의 신속 통관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최근 한·중관계 개선 흐름의 가속화와 중국 정부의 해외 아티스트 유치 정책 확대를 감안하면, 과거 어느때보다 한한령이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당시 중국 콘서트 시장에서 한국 아티스트가 단일 해외 아티스트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당시 주요 IP가 빅뱅, EXO 등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메가IP 풀(pool)이 크게 확대된 만큼 한한령 해제 시 한국 IP의 중국 콘서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 해외 아티스트 유치 인센티브

지역	정책발표 시점	주요내용
상하이	2024-04-26	-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콘서트 개최: 누적 유료 관객 3만명 이상→최대 200만 위안 지원, 5만명 이상 & 해외 관객 비중 10% 초과→300만 위안 지원 - 외국 카드 결제 인프라 확충 및 다국어 투자 지원
항저우	2024-06-28	-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콘서트 개최: 누적 유료관객 1만/3만→회당 최대 15만/30만 위안 지원 - 대형 콘서트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기간 압축 명시
푸젠	2024-10-08	-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콘서트 개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회당 최대 30만 위안 지원 - 글로벌 유명 아티스트·중요 공연단에 빠른 통관 등 편의 제공 명시
광둥	2025-05-27	-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콘서트 개최: 관객 규모 요건 충족 시 동일 주최사 기준 연간 최대 400만 위안 지원 - 영업성 공연 승인 기한 20→10영업일로 단축

자료: 언론종합, 유엔티증권 리서치센터

(4) 6 배 이상 확대된 한국 IP의 체급

그렇다면 한한령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에서 아레나급 이상의 투어를 할 수 있는 한국 IP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 IP의 중국 내 ‘콘서트 체급’을 가늠하기 위해, 본 자료에서는 최근 월드투어의 회당 모객 수와 QQ뮤직 팔로워 수 두 지표에 주목한다.

먼저 공연장 규모를 정의하면, 아레나급은 회당 10,000~18,000명 수준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투어 진행 시 유의미한 규모의 티켓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그 밑으로는 극장/홀급(2,000~5,000명), 그 위로는 스타디움/돔급(3만 명 이상)이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최근 월드투어 기준 회당 2만 명 이상의 모객력을 보유한 IP는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중국에서도 아레나급 이상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IP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콘서트의 특성상 한 사람이 다수 회차를 무제한으로 소비하기 어려워 콘서트의 흥행에는 코어 팬덤뿐 아니라 라이트 팬덤, 인지도 등 복합적 인기가 함께 반영된다. 이에 중국 내 사용자 기반이 가장 큰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QQ뮤직의 팔로워 수를 라이트 팬덤의 지표로 활용했다. 참고로 2026년에 중국 본토에서 스타디움급 투어를 진행하는 ‘Imagine Dragons’의 QQ 뮤직 팔로워 수는 260만 명 수준이다.

두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IP를 다음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1. 스타디움급 IP: 최근 월드투어 회당 모객 수 3만 명 이상 + QQ뮤직 팔로워 수 200만 명 이상
2. 아레나급 IP-1: 최근 월드투어 회당 모객 수 2만 명 이상 + QQ뮤직 팔로워 수 50만 명 이상
3. 아레나급 IP-2: 중국 내 인지도가 월등히 높은 그룹(QQ뮤직 팔로워 수 기준 250만 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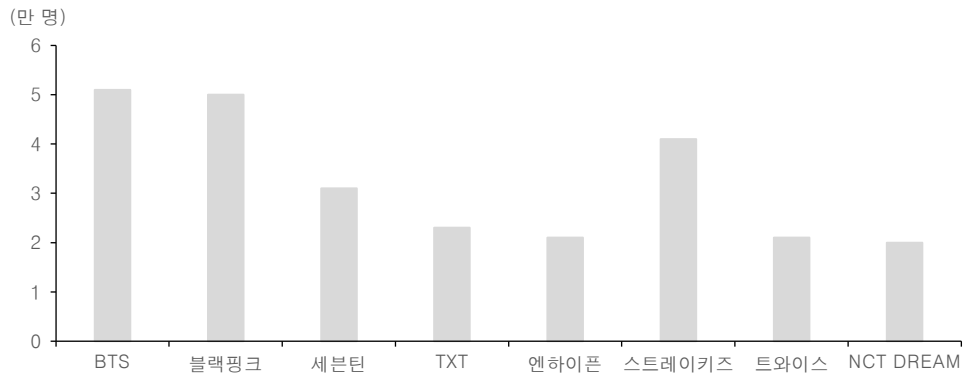
우선 현재 한국에서 스타디움급 투어 조건을 충족하는 IP는 BTS, 블랙핑크, 세븐틴 3개의 IP로 정리된다. BTS는 최근 발표한 ‘BTS WORLD TOUR’ 기준으로 회당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을 것으로 추정되며 QQ뮤직 팔로워수 또한 560만 명 이상이다. 블랙핑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DEADLINE’ 투어 기준으로 회당 추정 모객 수는 5만 명에 달하며 QQ뮤직 팔로워 수는 현재 842만 명이다. 세븐틴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NEW_’ 투어 기준으로 회당 추정 모객 수는 3.1만 명에 달하며 QQ뮤직 팔로워 수는 현재 210만 명이다.

다음으로 아레나급 투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IP는 TOMORROW X TOGETHER, 엔하이픈,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NCT DERAM, 에스파, i-dle, 아이유, 빅뱅, EXO 등 총 10팀이다.

2014~2016년 당시를 복기해보면, 한국에서 아레나급 투어를 진행한 IP는 EXO와 빅뱅 단 2팀에 불과했다. EXO는 2014년과 2015년 중국 본토에서 각각 10회 공연을 진행했고 각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빅뱅은 2015년 ‘Made World Tour’에서 15회 공연을 진행하며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객했고, 2016년 ‘Made V.I.P Tour’로 29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40~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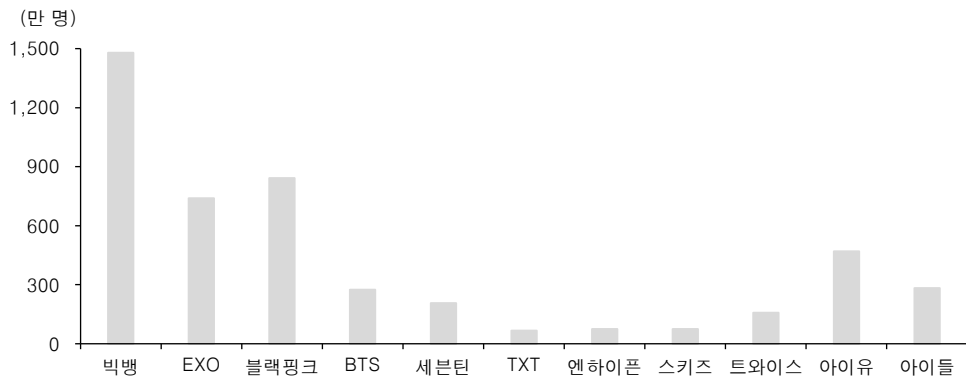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한한령 해제시 중국에서 아레나급 이상의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한국 IP는 총 13팀으로 2016년 당시 2팀 수준에서 2026년 현재 6배 이상 확대되었다.

한국 주요 IP 추정 회당 모객 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주요 IP QQ 뮤직 팔로워 수(2026.02)



자료: QQ音乐(QQ Mus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5) 한국 IP의 티켓 파워는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한국 IP가 중국 콘서트 시장에 진입할 경우 어느 정도의 박스오피스를 일으킬 수 있을까? 본 자료에서는 한국 IP를 스타디움급과 아레나급으로 구분해, 한한령 해제 시 투어 당(중국 내 단일 투어) 박스오피스를 추정한다.

(1) 스타디움급 IP

– 객수: 최근 공개된 ‘Imagine Dragons’의 중국 스타디움 투어 일정(3개도시, 8회)을 참고하되, 한중 간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해 스타디움급 한국 IP는 투어 1회당 총 10회의 공연을 진행, 공연장은 회당 5만명 규모의 관객을 수용 가능한 스타디움으로 가정한다.

– ATP(평균 티켓가격): ATP는 2024년 중국 콘서트 박스오피스 TOP 10 공연의 평균 티켓 가격인 1,220위안(26만원)을 적용한다. 25년말 기준 글로벌 스타디움급 투어의 ATP가 216달러(32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본 가정치는 보수적인 수치로 판단된다.

(2) 아레나급 IP

– 객수: 아레나급 IP의 경우 2015년 빅뱅의 아레나급 투어 ‘Made World Tour’ 사례(15회 공연, 총 20만 명 객)와 동일하게 가정한다.

– ATP(평균 티켓가격): 스타디움급 콘서트의 ATP에 비해 아레나급 콘서트의 ATP가 대략 3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발매되는 점을 감안해 1220위안에서 30% 할인한 850위안을 적용한다.

종합해보면 한한령 해제시 한국의 스타디움급 IP는 투어당 10회 공연, 아레나급 IP는 투어당 15회 공연을 개최하면서 중국 콘서트 박스오피스는 대략 35억 위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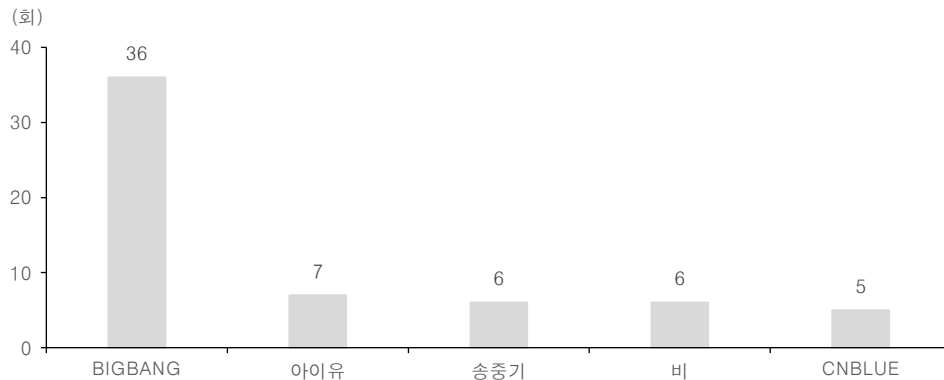
즉, 한한령 해제만으로도 2025년 중국 대형 상업공연(콘서트 및 음악축제) 박스오피스(약 324억 위안) 대비 약 11% 이상의 업사이드가 존재한다. 또한 2016년 빅뱅이 중국에서 연간 36회의 공연을 진행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향후 한국 IP의 중국 공연 재개가 보다 활발해질 경우 공연 횟수(Q)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박스오피스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한한령 해제시 중국 콘서트 박스오피스 추정

구분	항목	추정치	비고
스타디움급 IP	모객 수 (명)	500,000	- 26년 'Imagine Dragons' 스타디움급 중투어 사례 참고 - 투어 당 10회 공연, 공연 당 5만 명 규모 가정
	ATP (위안)	1,220	- 24년 중국 콘서트 박스오피스 TOP 10 공연의 평균치
	스타디움급 IP	3	- BTS, 블랙핑크, 세븐틴
	티켓 매출 (위안)	1,830,000,000	- 18.3억 위안
아레나급 IP	모객 수 (명)	200,000	- 15년 '빅뱅' 아레나급 중투어 사례 참고 - 투어 당 15회 공연, 공연 당 1.3만 명 규모 가정
	ATP (위안)	850	- 스타디움급 콘서트 대비 30% 할인
	아레나급 IP	10	- 투바투, 엔하이픈,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등 10팀
	티켓 매출 (위안)	1,700,000,000	- 17억 위안
합계	전체 티켓 매출 (위안)	3,530,000,000	- 35.3억 위안
25년 대비 업사이드	25년 중대형 공연 티켓 매출	324억 위안	- 25년 중대형 상업공연(콘서트, 음악축제) 박스오피스
	한한령 해제시 티켓 매출	35억 위안	
	업사이드	약 11%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16년 한국 주요 IP 중국 공연 횟수



자료: Daolue(道略音乐产业研究院),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magine Dragons 2026 중국 투어 일정

지역	날짜	수용 가능 인원
상하이	26.03.13	- 상하이 스타디움
	26.03.15	- 좌석 기준 수용 가능 인원: 72,000명 - 엔드 스테이지 기준 수용 가능 인원: 50,000~65,000
	26.03.17	- 360도 개방시 수용 가능 인원: 70,000~85,000
광저우	26.03.20	- 광둥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
	26.03.22	- 좌석 기준 수용 가능 인원: 80,000명 - 엔드 스테이지 기준 수용 가능 인원: 55,000~70,000
	26.03.25	- 360도 개방시 수용 가능 인원: 78,000~95,000
청두	26.03.27	- 광둥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
	26.03.29	- 좌석 기준 수용 가능 인원: 40,000명 - 엔드 스테이지 기준 수용 가능 인원: 28,000~38,000 - 360도 개방시 수용 가능 인원: 40,000~55,000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Damai Entertainment (1060.HK)

Damai Entertainment (1060.HK)

N/R (I)

해외 사업 확장과 대형 콘서트 티켓팅 커버리지에 주목

다마이 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최대 라이브 티켓팅 플랫폼 '다마이'를 중심으로 IP 라이선싱 및 유통, 영화·드라마 제작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티켓팅 플랫폼, IP라이선싱 및 유통, 영화 투자 및 제작 사업 등이 있으며 다마이의 중국 공연 예매 점유율은 70%로 사용자 수는 약 3억 명 수준이며 25년 말부터 해외로 확장 진행 중.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동사 2027 회계연도(3월 결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1.7억 위안(YoY +15.3%), 11.8억 위안(OPM 12.9%, YoY +30.5%) 달성할 전망. 이 중 티켓팅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다마이의 2027년 컨센서스 매출액은 27.0억 위안(YoY +12.9%)으로 이는 중국 내 한국 아티스트들의 공연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 향후 한한령이 해제될 경우 다마이의 중국 내 대형 콘서트 티켓팅 커버리지가 100%에 달하기 때문에 공연 티켓팅 부문에서 25% 이상의 매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현재 동사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 약 18배 수준. 동사의 향후 2년간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 컨센서스가 약 25%임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PEG 기준 1배 미만 구간에 위치해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며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판단

Forecasts and Valuation (GAAP 연결)

(단위: 백만위안, 위안, %, 배)

결산 (3월)	2023A	2024A	2025A	2026E	2027E
매출액	3,520	5,036	6,702	7,954	9,173
영업이익	-250	274	621	907	1,183
당기순이익	-291	285	364	972	1,238
PER	-	34	40	23.5	18.2
PBR	1	1	1	1.3	1.2
EV/EBITDA	-	27	18	15.5	15.5
ROE	-2.1	1.9	2.3	5.6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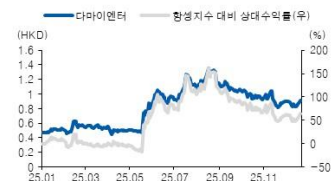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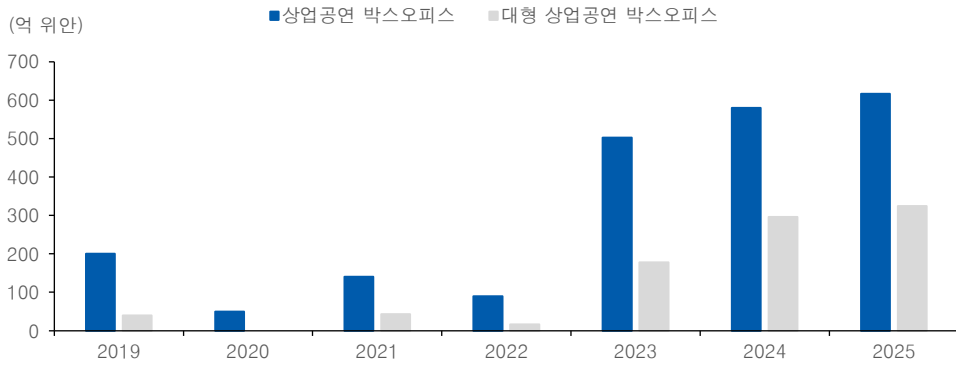
컨센서스	1.19 홍콩달러
현재주가 (02/25)	0.83 홍콩달러

시가총액	24.80 억 홍콩달러
총발행주식수	29,876 백만주
90일 평균 거래대금	181.55 백만 홍콩달러
90일 평균 거래량	198,569,400 주
52주 고	1.37 홍콩달러
52주 저	0.45 홍콩달러
주요주주	ALI CV INVESTMENT HOLDINGS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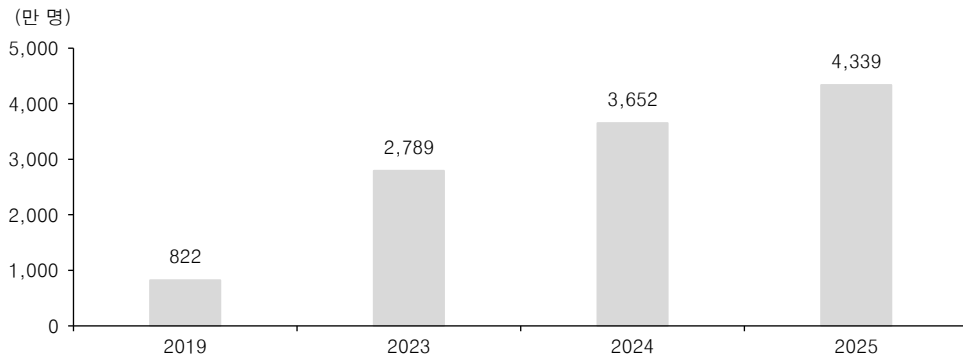
주가수익률 (%)	1M	3M	12M
절대	-9.8	-4.6	45.6
HSI Index	0.1	3.7	16.2

주가 및 상대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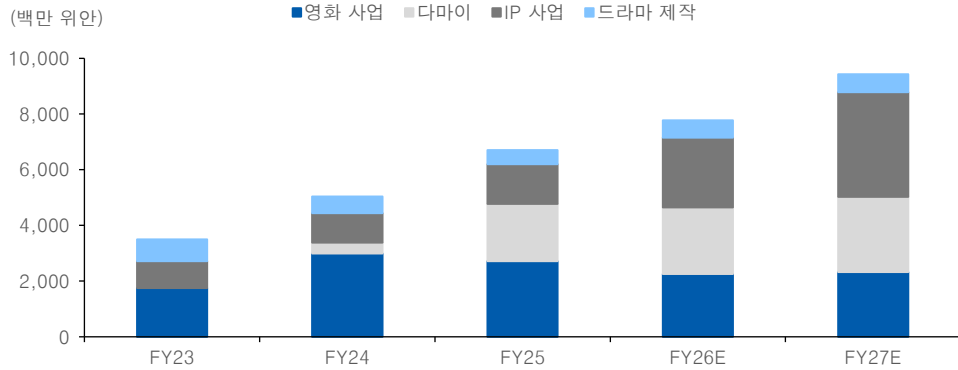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상업공연·대형 상업공연 박스오피스 추이

자료: 중국공연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 5,000명 이상 대형 상업공연 관람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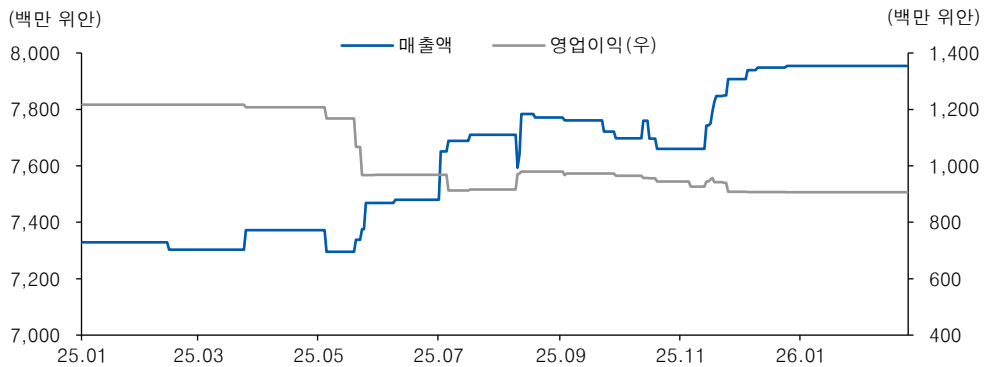
자료: 중국공연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Damai Entertainment 주요 사업부문 별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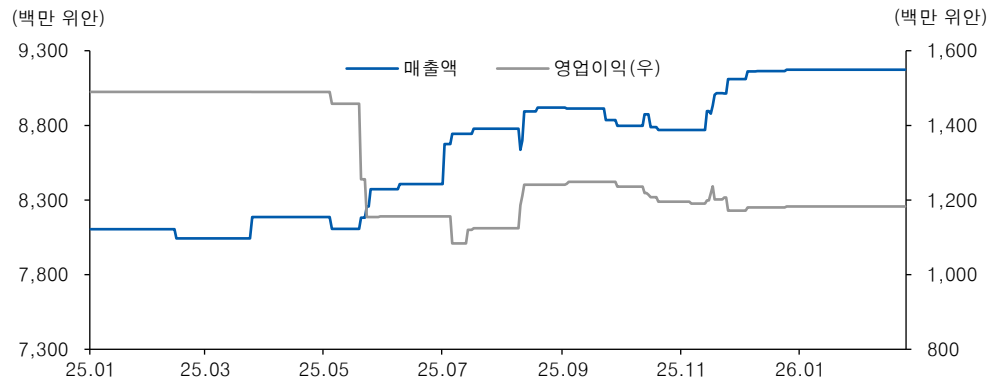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Damai Entertainment는 3월 결산 법인

[그림 4] Damai Entertainment FY 26 실적 컨센서스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Damai Entertainment는 3월 결산 법인

그림 5 Damai Entertainment FY 27 실적 컨센서스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Damai Entertainment는 3월 결산 법인

표 1] Damai Entertainment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위안)

		1S24	2S24	1S25	2S25	1S26	2S26E	1S27E	2S27E	2025	2026E	2027E
Total Sales	Total	2,616	2,420	3,051	3,652	4,047	3,836	4,786	4,810	6,702	7,954	9,173
	YoY%	43%	43%	17%	51%	33%	5%	18%	25%	33.1%	18.7%	15.3%
	QoQ%	55%	-7%	26%	20%	11%	-5%	25%	0%			
Gross Profit	Total	1,113	904	1,316	1,162	1,444	1,435	1,658	1,839	2,478	2,975	3,495
	GPM%	43%	37%	43%	32%	36%	37%	35%	38%	37%	37.4%	38.1%
Operating Profit	Total	403	-128	527	94	526	394	591	552	621	907	1,183
	OPM%	15%	-5%	17%	3%	13%	10%	12%	11%	9%	11%	13%
	YoY%	흑전	적지	31%	흑전	0%	319%	12%	40%	127%	46%	30%
	QoQ%	흑전	적전	흑전	-82%	460%	-25%	50%	-7%			
Net profit	Total	464	-179	337	27	520	421	499	652	364	972	1,238
	NPM%	18%	-7%	11%	1%	13%	11%	10%	14%	5%	12%	14%
	YoY%	흑전	적지	-27%	흑전	54%	1,461%	-4%	55%	28%	167%	27%
	QoQ%	흑전	적전	흑전	-92%	1,826%	-19%	19%	31%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Damai Entertainment는 3월 결산 법인, 주2) 2026E, 2027E 실적은 1S-2S 합계가 아닌 각 연도별 컨센서스 기준, 주3) S는 Semi-annual(반기)

Damai Entertainment (1060.HK) 재무제표 (GAAP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결산(3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2,859	3,652	3,520	5,036	6,702
매출원가	1,471	2,157	2,391	3,019	4,224
매출총이익	1,387	1,495	1,129	2,017	2,478
판매비	1,309	1,490	1,117	1,688	2,027
영업이익	-141	251	-250	274	621
EBITDA	-75	335	-204	308	729
영업외손익	-23	122	29	-26	327
외환관련손익	-19	-19	-15	-2	40
이자손익	-98	-89	-122	-215	-260
관계기업관련손익	4	11	39	79	120
기타	90	219	128	113	42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8	129	-279	300	294
법인세비용	-1	-25	0	-59	-92
계속사업순이익	-117	154	-279	359	386
중단사업순이익	0.0	0.0	0.0	61.5	0.0
당기순이익	-117	154	-279	297	386
지배지분순이익	-96	170	-291	285	364
포괄순이익	-259	92	-144	402	409
지배지분포괄이익	-283	68	-130	416	433

주: 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결산(3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영업활동 현금흐름	348	-427	559	972	-880
당기순이익	-96	170	-291	285	364
감가상각비	66	84	46	34	107
외환손익	-19	-19	-15	-2	40
종속, 관계기업관련손익	-	-	-	-	-
자산부채의 증감	-	-	-	-	-
기타현금흐름	398	-662	820	656	-1,391
투자활동 현금흐름	-35	190	-211	-449	-1,455
투자자산	1,161	1,339	781	1,144	1,007
총판 회기 (CAPEX)	-22	-15	-10	-10	-175
유형자산 감소	0	4	1	1	20
기타현금흐름	-1,174	-1,138	-984	-1,584	-2,307
재무활동 현금흐름	-1	-25	0	-59	-92
단기차입금	15	9	0	0	397
사채 및 장기차입금	15	0	0	0	0
자본	13,838	14,043	14,110	15,821	16,465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13,869	-14,078	-14,110	-15,879	-16,954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419	-97	34	29	520
현금의 증감	-107	-360	381	494	-1,908
기초 현금	4,005	3,898	3,538	3,920	4,414
기말 현금	3,898	3,538	3,920	4,414	2,506
NOPAT	-135	246	-257	339	632
FCF	326	-442	549	962	-1,056

자료: 유안타증권

-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결산(3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유동자산	7,402	7,862	8,502	13,094	12,139
현금및현금성자산	3,898	3,538	3,920	4,414	2,50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538	1,675	1,454	1,840	2,499
재고자산	0	18	39	31	41
비유동자산	8,139	7,715	7,070	8,366	11,361
유형자산	307	171	133	45	345
관계기업등 지분관련자산	2,075	1,723	1,827	1,672	915
기타투자자산	913	803	664	1,621	4,593
자산총계	15,541	15,577	15,572	21,460	23,499
유동부채	1,378	1,347	1,294	5,524	6,67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253	1,121	1,084	5,095	5,424
단기차입금	15	9	0	0	397
유동성장기부채	-	-	-	-	-
비유동부채	-	187	167	115	356
장기차입금	15	0	0	0	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1,703	1,534	1,461	5,639	7,034
지배지분	13,786	14,017	14,070	15,722	16,228
자본금	-	-	-	-	-
자본잉여금	13,372	13,423	13,423	14,042	14,082
이익잉여금	-3,874	-3,704	-3,995	-3,719	-3,356
비지배지분	52	26	40	98	238
자본총계	13,838	14,043	14,110	15,821	16,465
순차입금	-3,578	-3,361	-3,774	-4,349	-1,844
총차입금	326	177	146	64	661

Valuation 지표	(단위: 위안 배, %)				
결산(3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EPS	0.00	0.01	-0.01	0.01	0.01
BPS	0.51	0.52	0.52	0.53	0.55
EBITDAPS	0.01	-0.02	0.02	0.04	-0.03
SPS	0.11	0.14	0.13	0.18	0.23
DPS	0.00	0.00	0.00	0.00	0.00
PER	-	82.2	-	33.5	40.2
PBR	1.7	1.0	0.9	0.8	0.9
EV/EBITDA	-	32.4	-	26.4	17.9
PSR	7.9	3.8	3.4	2.3	2.2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3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증가율 (%)	-0.5%	27.7%	-3.6%	43.0%	33.1%
영업이익 증가율 (%)	-86.0%	-277.6%	-199.6%	-209.8%	126.5%
지배순이익 증가율 (%)	-91.6%	-276.4%	-271.4%	-197.8%	27.7%
매출총이익률 (%)	48.5%	40.9%	32.1%	40.1%	37.0%
영업이익률 (%)	-4.9%	6.9%	-7.1%	5.4%	9.3%
지배순이익률 (%)	-4.1%	4.2%	-7.9%	5.9%	5.8%
EBITDA 마진 (%)	-2.6%	9.2%	-5.8%	6.1%	10.9%
ROIC	-0.9	1.7	-1.8	2.2	3.8
ROA	-0.6	1.1	-1.9	1.5	1.6
ROE	-0.7	1.2	-2.1	1.9	2.3
부채비율 (%)	236%	126%	103%	41%	402%
순차입금/자기자본 (%)	-2,586%	-2,393%	-2,674%	-2,749%	-1,120%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7.5	19.8	-29.7	351.2	99.0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원욱, 한동우)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Head of Research Center **최현재**
3770-2553 / hyunjae.choi@yuantakorea.com

부센터장 2차전지/신에너지 **이안나**
3770-5599 / anna.lee@yuantakorea.com

투자전략

팀장 Strategist	김용구	3770-3521	yg.kim@yuantakorea.com	US Market Analyst	황병준	3523	byeongjun.hwang@yuantakorea.com
Fixed Income Strategist	이재형	5579	jaehyung.lee@yuantakorea.com	Quant Analyst	신현웅	3634	hyunyong.shin@yuantakorea.com
Passive/ ETF Analyst	고경범	3625	gyeongbeom.ko@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임지윤	3527	jiyeon.lim@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이현수	5718	hyunsoo.yi@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혜원	3526	hyewon.kim@yuantakorea.com
Global Strategist	민병규	3635	byungkyu.min@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세빈	3646	sebin2.kim@yuantakorea.com
Economist/ESG	김호정	3630	hojung.kim@yuantakorea.com				

기업분석

팀장 2차전지/신에너지	이안나	3770-5599	anna.lee@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배종성	3643	jongsung.bae@yuantakorea.com
인터넷/SW	이창영	5596	changyoung.lee@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신승우	5594	sungwoo.shin@yuantakorea.com
정유/화학	황규원	5607	kyuwon.hwang@yuantakorea.com				
스몰캡	권명준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화장품/의료기기/유통	이승은	5588	seungeun.lee@yuantakorea.com				
제약/바이오	하현수	2688	hyunsoo.ha@yuantakorea.com				
통신/지주	이승웅	5597	seungwoong.lee@yuantakorea.com				
조선/자동차	김용민	5606	yongmin.kim@yuantakorea.com				
미디어/엔터/디지털자산	이환욱	5590	hwanwook.lee@yuantakorea.com				
음식료/전력기기	손현정	5595	hyunjeong.son@yuantakorea.com				
반도체	백길현	5635	gilhyun.baik@yuantakorea.com				
금융	우도형	5589	dohyeong.woo@yuantakorea.com				
전기전자	고선영	3525	sunyoung.kou@yuantakorea.com				
방산/AI/로보틱스	백종민	5598	jongmin.baik@yuantakorea.com				
운송	최지운	3640	jiyun.choi@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도엽	5580	doyub.k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서석준	5585	seokjun.seo@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한동우	3647	dongwoo.han@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임석민	3648	seokmin.l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고은	3649	koeun2.kim@yuantakorea.com				

